



한암(漢岩) 선사(禪師)의 편지 <8>

### ‘萬戶千門’ 일시에 열리니...

만공(滿空)선사께 답하는 편지

장마가 막 건하여 창문을 반쯤 열어젖히니,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까지 소리와 함께 반가운 서신이 날아왔습니다.

어떤 스님이 설봉(雪峰, 설봉의존, 822~908)스님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제일구(第一句, 궁극의 진리)입니까?” 하니, 설봉이 양구(良久, 침묵)하시니, 어긋났도다(錯). 또 어떤 스님이 장생(長生, 長生 諱)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제일구입니까?” 하니 장생이 “창천창천(蒼天蒼天, 아이고 아이고)”이라 하시니, 어긋났도다(錯).

이것을 두고 열계거사(悅齋居士)가 평하기를 “설봉스님의 양구(良久)는 제일구(第二句)이고, 장생의 창천창천(蒼天蒼天)은 제삼구(第三句)에 떨어졌다.”라고 하였는데, 문득 어떤 스님이 나에게 “어떤 것이 제일구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나는 양구(良久) 후에 “창천창천(蒼天蒼天),”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 때 마칠 앞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나와서 말하기를 “스님(한암)께서는 어긋난 것을 가지고 더욱 어긋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將錯就錯).”라고 말한다면, 나는 곧바로 “그대는 어디서 이런 소식을 알았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옛 조사의 언구(言句)가 천하에 가득하다.”라고 말하면, 나는 곧바로 “옛 조사 스님들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답할 것입니다.

“옛 사람들의 일은 그만 두고 도인(道人, 한암)의 가풍은 어떠한지 말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주장자로 탁자를 한 차례 치고 나서 “수많은 문들이 일시에 열리니 우두산의 푸른 빛이 허공에 뿔뿔하다(萬戶千門一作開, 牛頭山色掃天碧)라고 할 것입니다.” 쫓쫓 ㄹ

이 편지는 한암선사가 맹산 우두암에 있을 때 만공스님에게 보낸 답서이다. 만공선사가 선승들에게 “무엇이 제일구(第一句)인지 한마디 일러 보라”는 서신을 보냈다. 한암선사는 자문지답 형식으로 당말 송대 선승들의 송(頌)과 좌어(着語)를 인용한 다음 자신의 착어와 송을 붙이고 있다.

제일구(第一句)란 곧 제일의(第一義)와 같은 말이고 성제제일의(聖諦第一義)와도 같은 말이다. 즉 선의 본질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한마디를 제일구(第一句)라고 하는데, 이에 반하여 제이구(第二句)나 제삼구는 2등, 3등과 같은 말이다. 즉 핵심을 찌르는 답이 못 된다는 뜻이다.

제일구에 대하여 설봉(雪峰) 스님은 양구(良久, 침묵)를 했고, 장생(長生) 스님은

“창천창천(蒼天蒼天, 아이고 아이고)”이라고 했는데, 언어도단(言語道斷)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 보라고 하니 설봉은 ‘양구(良久, 침묵)’를 했고, 장생스님은 ‘아이고 아이고(蒼天蒼天)’라고 통곡한 것이다.

선어에 ‘개구즉착(開口卽錯: 입을 열면 곧바로 어긋남), ‘언전불급(言語不及: 말이 닿지 못함)’이라는 말이 있다. 언어문자로 표현한다면 선의 핵심(제일구)은 그 언어의 개념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사면 가운데 한쪽 면만 표현하는데 그친다. 즉 제이, 제삼에 불과하게 된다(落在二三頭). 여기에 대하여 한암선사는 모두 ‘착(錯: 어긋남)’이라고 했는데, 즉 제일구의 소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인데, 이렇게 비평하는 것은 착어(著語)를 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이다

“어떤 것이 ‘제일구’ 입니까?”

설봉은 양구

장생은 창천창천

한암 스님은 양구한 후 창천창천

도인의 가풍 묻는다면

“우두산색이 푸른 허공 찌른다”

편지원본 없고 <경허법어>에 수록

한암선사는 누가 나에게 ‘옛 선승들이 한 말은 그만 나열하고 한암스님 당시의 가풍을 말해 보라’고 한다면 주장자로 탁자를 한 차례 치고 나서 ‘만호(萬戶) 천문(千門)이 일시에 열리니 우두산색이 푸른 허공을 찌른다(萬戶千門一作開, 牛頭山色掃天碧)’라고 답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돈각(頓覺)의 경지, 본래면목을 깨달은 당당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일구에 대한 한암선사의 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서간은 초암자(草庵子)라고 하는 이가 필사한 [경허법어] 끝에 ‘第一句答’이라는 큰 제목 하(下)에 ‘맹산 우두암 방한암(孟山 牛頭庵 方漢岩 答)’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한암선사가 맹산 우두암에 있을 때 보낸 것이므로 1911년(36세)~1917년 사이라고 할 수 있다.



윤창희(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 “사찰은 세상과 함께 호흡해야죠 그래서 요즘 매일 ‘팽목항’ 갑니다”

금강 스님 (해남 미항사 주지)

혹자는 한국불교가 정체 상황에 있다고 말한다. 신도 수는 늘지 않고, 내부 결속력도 낮은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불교의 0.8%만이 포교를 시도하고 있다고 (이 설문 조사에서 기독교는 21.5%, 가톨릭은 4.7%가 전법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하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다. 그래서인지 불교계에서는 시대에 맞는 포교 전략과 정책 개발의 시급성을 주장하며 다양한 포교관련 세미나를 빈번하게 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눈에 띄는 성공사례가 있으니 바로 팽목마을의 아름다운 절 해남 미항사다.

지금쯤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찰이 됐지만 10여 년 전만해도 미항사는 많은 이들에게 낯선 절이었다. 교통 여건이 많이 좋아진 지금도 서울에서 자동차로 6시간, 부산·대구에서도 4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라 여간해서는 찾아갈 엄두를 내기 어렵다. 그런데도 해마다 미항사를 찾는 사람이 10만 명에 달한다. 이 같은 이유는 달마산의 기암괴석을 병풍처럼 뒤에 두르고 장엄한 바다를 앞에 둔 경치 때문만이 아니다. 팽목마을의 아름다운 절이라는 이름에 후해서 오는 것도 아니다.

한문학당, 템플스테이, 참선수행 프로그램 ‘참사람의 향기’, 패블제와 음악회, 해맞이·해넘이, 어르신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때문이다.

전국의 여러 사찰들이 미항사처럼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굳이 먼 곳까지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항사의 성공 노하우를 묻자, 주지 금강 스님은 이렇게 답했다.

“팽목마을을 작은 절 하나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한 가지 마음뿐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해 준 것이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차 한잔 대접한 것 뿐입니다. 또 미항사의 모든 행사에 지역민들을 주인공으로 세웠습니다. 화려한 불거리보다는 이 행사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골몰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성공요인이 아닐까요?”

폐허나 다름없던 미항사를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템플스테이 사찰로 만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스님에게 물었다.

포교현장 누비던 ‘지계 스님’

전남 해남서 태어난 스님은 보이스카우트, 하이킹, 간부수련회 등 다양한 야외활동을 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육조단경>을 읽고 감동을 받으면서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참선을 배우기 위해 대흥사 지운 스님을 찾았다. 금강 스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운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참선을 배우며 학교를 다녔다.

졸업 후 출가를 결심한 스님은 곧바로 해인사로 향했다. 해인사 참배를 하던 중 백련암 마당에서 前 조계종 종정 해암 스님(1920~2001)을 만났다. “무엇하러 왔느냐”는 해암 스님의 질문에 금강 스님은

“행자 생활하러 왔습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해암 스님은 “너 잘 왔다. 이번 생에 태어났다 생각지 말고 공부하다 죽어라”는 짧고 강렬한 한마디를 남겼다.

“당시 해암 스님의 말씀은 저에게는 계율과도 같았습니다. 큰 울림으로 다가왔지요. 항상 무엇을 할 때마다 세속적 삶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와도 같았어요.”

그렇게 해인사에서 행자생활 하던 금강 스님은 1988년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금강 스님의 미항사 생활은 1989년에 시작됐다. 한때 12암자를 거느리고 400여 스님이 기거한 거찰이던 이 절이 비어있었다는 소식을 접한 금강 스님은 은사인 지운 스님도 미항사로 모셨다. 출가 이후 은사 스님을 제대로 시봉한 적이 없었다는 죄송함이 그 이유였다.

749년(신라 경덕왕 8년) 의조화상(義熙和尙)이 창건한 미항사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유지하다 1887년 이후 쇠퇴의 길을 걸었다.

승가대 시절부터 불교 대사회적 역할 고민

서용 스님의 무차대회 기획... 선봉 일으켜

한문학당, 참사랑 결사 등 소프트웨어 인기

미항사 템플스테이 참가기록 전남 사찰 최고

음악회·패블제 등 행사 주인공은 지역주민

금강 스님이 처음 미항사에 들어왔을 때는 대웅전과 응진전만 있었다. 절간에 응당 있어야 할 천왕문이며 일주문조차 없었다. 그때부터 금강 스님은 지계를 지고 돌을 나르며 무너진 축대를 쌓고 마당을 넓히고 나무를 정리하는 등 도량을 가꿨다. 이때 동내 주민들은 금강 스님을 ‘지계 스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던 중 스님은 “시골에 있지만 말고 공부하자”는 출가 도반들의 말에 1991년 중앙승가대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때 스님은 승가대신문 기자와 학생회장, 전국불교운동연합 부의장, 범종단개혁 추진위 공동대표 등을 맡았다. 여기에 정토구현전국승가회라는 불교계 진보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불교와 사회의 만남을 체험했다. 8·15



2000년 여름부터 방학동안 열고 있는 어린이 한문학당은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특별기획 ‘친일불교 청산’에 대한 스님의 기사는 교계 안팎의 큰 반응을 받았다.

“1987년 민주항쟁과 광주 5·18 7주기 행사 등을 접하면서, 현대에 맞는 승가의 역할이란 무엇인지 고민해 왔습니다. 승가대 재학시절 포교연구부에서는 늘 ‘포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한편 토론도 쉬지 않고 계속 했지요.”

그래서 스님은 승가대 학생회장을 맡기 전까지 주말에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광주 원각사 학생회, 종원불교대, 국립의료원, 능인선원 등 각종 법회를 맡아 포교현장을 누볐다.

1994년 종단개혁으로 종단 집행부가 자리 잡을 무렵에는 고산·혜정 스님을 모시고 포살을 하고, 선방에서 화두도 들었다. 다시 미항사에 돌아와서는 지계 대신 포크레인을 운전하며 불사에 전념했다. 그러다 백양사 방장 서용 스님(1912~2003)의 부름을 받고 무차대회를 열어 선의 대중화에 일조했다.

“서용 스님을 모신 3년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수행을 통해 사람들에게 역경을 극복할 힘을 주어야 한다’ ‘정신적 지도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다그치던 스님의 가르침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백양사에서의 ‘참사람 수행결사’는 시작됐고, 금강 스님은 일반인과 IMF 실직자들을 위한 단기 수행 프로그램을 열어 못 삶의 아픔을 함께 하기도 했다.

미항사에 연간 10만명 다녀가는 이유

금강 스님이 본격적으로 미항사 살림을 맡은 것은 2000년 초반부터다. 1992년부터 주지를 맡아 중창불사를 시작한 미항사 前 주지 현공 스님이 2001년 금강 스님에게 주지 자리를 물려줬다. 현공 스님은 불사에만 전념해 대웅보전과 명부전, 삼성각, 만화당, 부도암 등 전각 일곱 채와 세심당(수련원)·향적당을 비롯한 요사채 아홉 채를 복원했고, 부속건물 여섯 채를 신축했다. 그 사이 금강 스님은 전통 강원 시스템을 응용한 초등학교 한문학당, 템플스테이, 참선수련회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절고 낮설었던 미항사를 친숙하고 아름다운 절로 바꿔놓았다.

미항사의 연간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5000여 명에 달한다. 가을에 열리는 패블제에는 1500~2000명이 다녀간다. 2000년 여름부터 방학동안 열고 있는 어린이 한문학당은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금강 스님은 세월호 참사 다음날부터 매일 진도를 오가며 피해자 가족을 상담하고 예불을 올리고 있다.

## ★ 갑오년 귀(貴) 자녀의 출생을 축하합니다 ★

세상 만물이 난조(暖燥) 및 한습(寒濕)의 조화에 의하여 이루어 지듯이 인간도 자연의 조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신생아는 춥다, 덥다 표현이 어려우니 환경이 안 맞으면 우는 것이 곧 언어이다.

부모가 춥다, 덥다는 부모 체질에 맞는 환경은 부모는 좋지만 부모와 체질이 다른 아기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본 연구소는 체질, 적성, 성격 등을 참조하여 지은 이름은 아기를 건강하게 하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명은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방필석 대내외활동	前 대통령 손녀딸 작명	前 스리랑카 대통령 각 3회 초청 방문
	前 대통령 영식 아호 찬명	前 스리랑카 문화부장관 초청방문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수상과 함께 청와대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 2011년 인도 세계불교대회 초청 방문

## ★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어디서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썩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5년 작명 국가공인 한자 1급 7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전화 02)739-8259, 02)738-5577 www.8259.co.kr 국내외 우편발송  
작명보시금 20만원 우리은행 : 306-07-194422 / 농협 : 053-02155-065 예금주 : 방필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3(건지동) 동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 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법사 방 필 석



법사 방필석

현명한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들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귀(貴)하고 소중한 자녀의 이름은  
가적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이다.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濟人是 必無濟人之日이요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개명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개명할 때가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改名은 必無改名之時라

# 신생아 작명

개명·아호·상호

역학개인지도



금강 스님은 ...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다. 17세(1982)에 대흥사 지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0세에 해인사서 행자생활을 했으며, 그 해 지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8년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중앙승가대에 입학(1991)해 <승가대신문> 편집장과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으며, 전국불교연맹본부 부의장과 범종단개혁추진회 공동대표를 맡아 중단 개혁(1994)을 도왔다. 백양사 서운 스님을 모시고 참사랑운동과 무차선회(1998)를 기획해 한국의 선을 일반화하고 세계화 하는데 일조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미항사 주지를 맡아 한문학당, 템플스테이, 참선수행-참사람의 향기, 과불재 등 다양한 수행과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세상과 호흡하는 산중사찰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인기 비결에 대해 묻자 금강 스님은 "학창시절 보이스 카운트 등 캠프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익숙해진 것 같다"며 "미항사에는 숲과 맑은 공기, 그리고 오래된 법당이 있다.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장점이 많다. 그 것을 살려서 한문학당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어린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보고 자신감이 붙어 2002년 월드컵 기간부터 템플스테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항사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그 먼 곳까지 누가 간다고 그런 일을 벌이느냐"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2008년 미항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5118명으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전남 지역 13개 사찰 가운데 가장 많았다. 유서 깊은 대찰인 백양사(3002명), 화엄사(2506명), 대흥사(2393명), 송광사(2114명)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미항사를 찾았다.

미항사가 연간 10만 명이 다녀가는 사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손을 내밀고 환영하는 전통 덕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아가지만 아는 사람이 없을 경우 잠시 쉬 자리도 찾기 어려운 낯선 공간이 된다. 하지만 미항사에선 방문객이 오면 누구나 기꺼이 안내자를 자청한다. 금강 스님은 누구든 차별 없이 자신의 방에서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스님과 차를 마시고 돌아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미항사에 가면 주지 스님이 공짜로 차를 주고 인생 상담도 해준다'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미항사를 찾는 사람들도 늘었다. 금강 스님이 하루에 마시는 차가 80~150잔은 족히 될 정도다.

사람이 점점 늘어날수록 바쁘고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스님은 "나의 생활에 맞추면 됩니다. 내 일상생활에 맞추어 손님들을 맞이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편찮습니다. 평소 제가 예불할 때 예불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참선할 때 참선하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진

행하면 10년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라고 답했다.

미항사는 지역주민을 사찰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적극적인 친화전략을 활용했다. 산사음악회, 과불재 등 사찰 행사에 지역민을 대거 참여시켜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매년 10월 열리는 과불재에서 지역민들이 1년 농사의 수확물을 불전에 바치는 '만물공양'도 이 행사의 핵심이다. 햅쌀, 콩, 깨 한도, 매듭공예, 떡, 박사학위 논문, 학교에서 받은 상장 등 각자 소중한 것을 공양물로 내놓는다.

산사음악회에서는 사하촌 주민들로 이뤄진 주부풍물패, 어르신 소리꾼 등이 '해남 들노래'와 남도 판소리, 청산도 바닷노래를 비롯한 지역의 전통문화를 선보인다. 덕분에 제1회 산사음악회 때부터 음향설비와 조명을 맡아온 해남의 한 전파사 대표는 이 지역 최고의 음향전문가가 됐고, 소리꾼 할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초청 받을 만큼 유명인사가 됐다고 한다.

사찰이 지역민과 단절되거나 지역민을 두려리로 만들게 아니라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게 금강 스님의 지론이다.

"사실 도움은 제가 더 많이 받습니다. 부처님오신날 굿은 일 마다 않고 해주고, 마을 들머리에서 미항사에 이르는 길의 잡풀을 제거해주는 분들이 바로 마을 어르신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절에 반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두 팔 걷어붙이고 제 일처려 뒷일 봐주는 분들은 언제나 그 분들입니다. 그러니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동업중생인 셈이지요."

향상 대중의 고통 해소 발원

금강 스님은 세월호 참사 다음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고 그날부터 매일 진도를 오가고 있다. 오전에는 미항사 일을 보고 오후에는 진도로 건너가 피해자 가족을 상담하고 예불을 올린다.

"진도 앞바다에 가면 유가족들의 자식 잃은 아픔과 괴

로움이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부모들이 기운 차릴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싶어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려는 진도 스님들과 대흥사·송광사·화엄사·백양사 스님들이 팽목항과 체육관 옆에 임시 법당을 차렸다. 전국의 비구니 스님들도 달려와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죽과 떡을 나눠주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있다.

스님은 생명과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돈과 책임 소재를 중시하는 풍조를 사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으며, 이러한 세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강 스님은 "대립과 경쟁, 갈등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인들도 산중 스님들 못지않은 수행이 필요합니다. 저는 미항사가 지금 이 순간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광장지 좋은 도량이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미항사가 국민들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수행의 공간으로 거듭 나기를 발원할 뿐입니다"고 말했다.

이렇듯 스님은 늘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연민, 무한한 애정을 갖고 어떻게 하면 대중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금강 스님의 가장 친한 도반인 법인 스님(前 조계종 교육부장, 해남 일지암 암주)은 금강 스님의 책 <망갈마을 아름다운 절>에서 금강 스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한다. 금강 스님은 이벤트에 강하고, 기획력이 뛰어나고, 일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드러난 일을 유심히 보라.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보인다. 금강 스님이 10년 넘게 미항사와 살아오면서 이루어 낸 것들은 모두 그의 깊은 진정성에서 비롯됐다."

이니은 기자 oasis1963@hyunbul.com

전법일기

“직업을 선업으로 가꾸자”

업(業)이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우리의 생활 수단인 직업(職業)을 보면 업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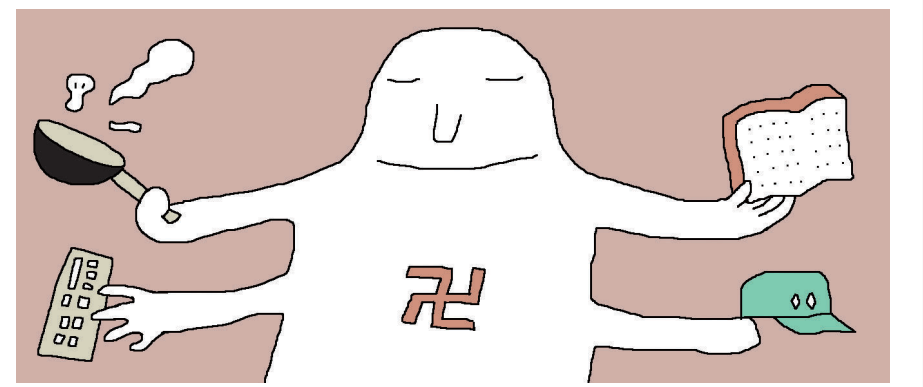
사람은 대부분 살아가는 수단으로 직업을 선택한다. 백짓장 같은 마음이 직업을 가지면서 서서히 그 업에 빠져들어 간다. 그래서 군인은 군인 같고, 공무원은 공무원 같고, 우리 같은 스님들은 스님 같아진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던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본마음이다. 다시 태어나도 그 직업을 가질 것이 아닌데도 그 직업 때문에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많다. 지구상에는 수만 종의 직업이 있다. 우리는 편의에 따라 그 중 하나를 선택해 가족의 생계를 맡기고,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것은 어디까지나

지 지겠지만, 결국 초심으로 돌아와 용인 시골에 선원을 짓고 수행을 하고 있다. 전역 후에는 절대로 공직을 더 이상 맡지 않기로 결심했다. 은사 스님의 엄명으로 군포교에 나섰지만 스님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선지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바로 초심이었다. 불자들에게 초심은 바로 불심이다.

현대의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달되고 있다. 이런 기술의 변화는 동시다발적으로 돌아지고 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더라도 인간은 변해서는 아니 된다. 인간의 마음은 불심으로 채워져야 완전한 것이다. 노벨은 원래 산업에 이용하려고 다이아몬드를 발명했지만 살인마들은 총과 대포에 이용해 인명을 살상했다. 현대 철



그림·박구원

수단이요 통과여래다.

특히 자신들의 직업을 스스로 천시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할 때 그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매우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다. 부처님 시대처럼 사농공상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만 가지 직업이 있다. 그만큼 우리 불자들도 직업에 관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보통 악업을 쌓는 동기는 직업에서 나온다. 직업상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짐승을 잡아먹고, 그 고기를 팔아야 하고, 그것을 요리해야 한다. 직업상 이자를 높이 받아야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잡아들여야 하고, 싸울 수도 있다.

사람들이 건전하게 직업을 갖고 청재(淸財)를 얻기 위해 귀수불심(鬼手佛心) 녀자를 지냈으면 한다. 귀수불심이란 곧 귀신의 손과 부처님의 마음을 말한다. 일하는 솜씨는 귀신과 같아서 각자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류가 돼야 하지만, 그 마음만은 언제나 불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손과 마음이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면 돈을 번다는 행위는 선업(善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단 과학기술 중에는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하지만 파멸시키는 것들도 많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군 포교 일선에서 군승들이 사표로 삼는 스님들, 승장들, 이틀테면 휴정, 유정, 처영, 영규 스님 같은 분들은 직위를 받은 바 없다. 일반 백성들이야 왜군 머리 하나만 베어 바쳐도 현감이고 군수고 여러 자리가 보장됐지만, 스님들은 왜란 이후 일사분란하게 수행처로 돌아갔다.

현대인들은 죽을 때까지 그 업을 놓지 못하고 산다. 퇴직하면 그것을 딱 잊고, 자신을 돌아보고, 수행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번 대사 한 것으로 평생 대사님으로 불리고, 한번 국회의원하면 평생 의원님으로 불리는 세상이다. 이런 행태 속에서는 불심은 결코 자라지 못한다. 업을 스스로 끊고 다니는 것이다.

지금 현재에도 여러 직장에서 생업에 매진하는 이들이 귀수불심, 이 녀자를 가슴에 새기길 기원한다.



자랑 스님 (前 군중교구장·용인 반이산원 주지)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만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며,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바로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x 세로 6cm x 두께 2cm(청색, 홍색) + 4GB 불경SD카드 + 이어폰 + 1200AM 배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이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사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회)

- 정현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하원의 기도
3. 가나 평안을 위한 기도
4. 불마 귀유를 위한 기도
5. 영상의 기도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명의 기도
9. 장영 염불
10. 지원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반심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쫓는
14. 여름 별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버리면
19. 우리도 괴상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문을 닫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전원 1
22. 광명전원 2
23. 개경계
24. 지경공덕문
25. 예불문
26. 안산 해원선사 발원문
27. 찬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한계
30. 법성계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찬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찰서원
43. 사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갈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계
55. 이상정명분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맹화·금고·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불교예술원 (공강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아 상담 합니다